

[회사 원문]

PRESS RELEASE

배포일자: 19.05.27

엑세스바이오,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3억 원 기록**지속적인 대규모 수주 및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한 연간 실적 개선 기대****[2019-05-27] 엑세스바이오(대표이사 최영호)는 올해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03억 원(YoY 3%↓, QoQ 24%↑), 영업손실은 11억 원(YoY 232%↑, QoQ 53%↓), 당기순손실은 16억 원(YoY 96%↑, QoQ 47%↓)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감소한 반면, 전분기 대비 실적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별도기준 매출액은 말라리아 진단 사업 분야 성장에 힘입어 97억 원(YoY 5%↓, QoQ 42%↑),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각 1억원(YoY 90%↓, QoQ 109%↑), 0.5억원(YoY 93%↓, QoQ 107%↑)을 기록했다.

엑세스바이오 관계자는 “실적 추이를 볼 때, 말라리아 진단키트(RDT)의 판매 물량 확대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말라리아 RDT 사업은 입찰 베이스이기 때문에 분기별 실적의 변동성이 큰 편이나, 말라리아 RDT 주요 공급업체와 장기계약 체결 및 연이은 수주 낙찰 등으로 올해 이미 안정적인 수주잔고를 확보하고 있어 전체적인 연간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영업이익은 1분기 동안 상대적으로 판가가 낮은 대규모 수주 건이 상당부분 매출에 인식되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으나, 향후에는 소규모 주문 및 추가 수주의 판가 조율로 충분히 이익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더 나아가 하반기에는 신제품 매출 추가로 인한 외형 확대 및 수익성 향상 또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독감 시즌이 돌입 되는 하반기에는 독감진단키트의 매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미 FDA 510(k) 획득을 위해 미국 12곳에서 임상을 완료하고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중”이라며 “최근 스리랑카의 Dengue 진단키트 입찰에서 성공적으로 낙찰 받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한 매출 확대는 물론 이익률 개선도 이뤄지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결기준 (백만원)	1Q18	4Q19	1Q19	전분기대비 (QoQ)	전년동기대비 (YoY)
매출액	10,600	8,296	10,319	24%	(3)%
영업이익	(321)	(2,262)	(1,066)	53%	(232)%
당기순이익	(815)	(3,044)	(1,600)	47%	(96)%
영업이익률	(3.0)%	(27.3)%	(10.3)%	17.0%p	(7.3)%p

별도기준 (백만원)	1Q18	4Q18	1Q19	전분기대비 (QoQ)	전년동기대비 (YoY)
매출액	10,215	6,811	9,697	42%	(5)%
영업이익	1,096	(1,319)	115	109%	(90)%
당기순이익	673	(679)	45	107%	(93)%
영업이익률	10.7%	(19.4)%	1.2%	20.6%p	(9.5)%p